

야쿠시마 섬의 수림

조엽수림대(0~1,000m)

야쿠시마 섬의 산지는 마에다케라고 하는 바깥쪽 산들과 오쿠다케라고 하는 안쪽 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가까운 마에다케는 해발 약 800m에 이르며, 그 대부분은 일본 최대라고도 하는 조엽수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광택이 있고 빛을 반사하는 잎이 특징인 상록활엽수는 안보가와 강, 다시로 및 세이부린도(서부임도) 연안 등 해안을 따라 있는 온대 지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해발이 낮은 숲으로는 너도밤나무, 붉가시나무, 모밀잣밤나무 및 돌참나무 등이 있고, 또한 녹나무과의 수목인 녹나무와 후박나무,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단단한 활엽수 목재인 조록나무과의 조록나무 등이 있습니다. 연안 지역에는 상록수인 졸가시나무(*Quercus phillyraeoides*)와 마루바낫케이(*Cinnamomum daphnoides*)가 자라고 있습니다.

삼나무 수림대(800~1,800m)

해발 800~1200m 부근에 있는 삼나무 수림대에는 조엽수와 삼나무가 뒤섞여 자라고 있습니다. 전나무, 솔송나무, 노송나무 등의 침엽수와 상록활엽수인 수레나무, 낙엽활엽수인 엄나무, 그리고 노각나무 등이 기후가 한랭한 해발이 높은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엄나무와 노각나무 등은 거목이 쓰러진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조릿대 초원 지대(1,800~2,000m)

바람이 강하고 싸늘해서 삼나무나 키가 큰 식물에는 부적합한 이 조릿대 초원 지대에는 조릿대 외에 주로 야쿠시마석남, 마취목 등이 군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릿대 사이에는 야쿠시마엉겅퀴, 샤큐난간피(팥꽃나무과의 일종), 야쿠시마용담 외에 많은 고유 식물도 자라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핑크색과 흰색의 종 모양 꽃이 피는 야쿠시마석남이 이 구역을 물들입니다.

수림을 볼 수 있는 곳

세이부린도(서부임도)

총길이 약 20km의 세이부린도는 아열대 식물부터 산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종까지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구역을 자동차로 통과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야쿠시마 섬의 특징적인 식생 수직분포에 따라 야쿠시마 섬 총 면적의 약 20%에 상당하는 10,747 헥타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가주마루(대만고무나무)와 아코(*Ficus superba var. japonica*) 등의 거목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이부린도는 세계유산 구역에서는 유일하게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도로변에는 상록수가 늘어서 있고, 이들의 가지와 잎이 만들어내는 캐노피 같은 구간은 ‘녹색터널’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을에는 녹색의 잎과 아열대 식물이 어우러져 형형색색의 인상적인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오시는 법: 자동차로 안보 항구에서 구리오 입구까지 약 69 분, 미야노우라 항구에서 나가타 입구까지 약 45 분 또는 야쿠시마 공항에서 나가타 입구까지 약 61 분

야쿠스기 랜드

이 270 헥타르의 수림은 해발 약 1,000m에 위치해 있어 자연 그대로의 맑은 시냇물뿐만 아니라 솔송나무, 전나무, 야쿠스기 삼나무, 독특한 이름의 삼나무, 그리고 이끼 등 해발과 더불어 변화하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길이가 다른 다섯 가지 등산 코스(30분, 50분, 80분, 150분, 210분)가 다양한 수준의 등산객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법: 자동차로 안보 항구에서 약 32 분, 미야노우라 항구에서 약 57 분 또는 야쿠시마 공항에서 약 42 분